

1위 탈환 광주FC, FA컵서도 승승장구 노린다

오늘 FA컵 16강 인천 원정경기 역대 전적 6승 12무 6패로 팽팽 공·수 조화 앞세워 승리 노려

K리그2 1위 탈환에 성공한 광주FC가 FA컵 16강을 위해 인천으로 떠난다. 광주는 27일 오후 7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22 하나원큐 FA컵 3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최근 광주 분위기가 뜨겁다. 광주는 K리그2 12라운드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마이키의 득점을 앞세워 1-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에 성공했다. 홈 7연승까지 동시에 이룬 광주는 부천을 끌어내리고 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았다. '승격'을 향해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 광주는 '실리'에 무게를 두고 FA컵 3라운드 경기를 준비하고 있다. 치열한 승격 경쟁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다음 경기들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로테이션을 가동한다. 부주장이자 중원의 핵심인 김중우를 중심으로 이찬동, 문상윤 등 주전급 베테랑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와 승리와 컨디션 점검을 위해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다. 여기에 하승운, 이준, 신승훈, 정종훈 등 패기 넘

치는 젊은 선수들도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는 탄탄해진 선수층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올 시즌 K리그1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천을 상대하게 된다. 인천은 올 시즌 현재 5승 3무 1패를 기록하면서 K리그1 2위에 자리하고 있다. 무고사가 7골로 최다 득점 1위에 올라있고 이명주, 김도혁, 아길라르, 송시우 등 공수에 걸쳐 출중한 실력의 선수들이 즐비하다. 리그 휴식기를 통해 체력까지 채운 상태다. 광주는 인천과 역대 전적에서 6승 12무 6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4차례 대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광주는 최근 6경기에서 7득점과 3실점을 기록하는 등 공·수의 완벽한 밸런스로 6경기 연속 무패(5승 1무)를 달리며 K리그2 선두질주하고 있다. 광주가 끈끈한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으로 인천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편 앞선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마이키의 골을 도운 헤이스가 K리그2 12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헤이스는 전반 12분 코너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서 공을 띄웠고, 문전에 있던 마이키가 머리로 K리그 데뷔골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헤이스의 시즌 첫 도움도 기록했다. 헤이스는 앞서 5골을 기록하는 등 광주 공격을 이끌고 있다.



광주FC가 6경기 연속 무패 상승세를 이어 27일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FA컵 3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부상에서 벗어난 베테랑 김중우(왼쪽)가 승리를 위해 전면에 선다. <광주FC 제공>

송원대 세팍타크로, 창단 10일만에 전국대회서 일냈다

전국선수권 은메달·동메달

송원대 세팍타크로팀이 창단 후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송원대 세팍타크로팀은 최근 강원도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및 제33회 전국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남대부 쿼드(4인제)에서 은메달, 레구(3인제)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성훈·이승우·우정호·이장진(이상 1년)이 호흡을 맞춘 송원대는 6개 팀이 2개조로 나눠 치러진 쿼드 예선리그에서 대구 과학대를 2대1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준결승전에서 원광대를 2대0으로 제압한 송원대는 결승에서 대학 최강 목원대에 1대2로 패하며 창단 첫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김성훈·이승우·우정호가 출전한 레구에서는 예선리그 1승 1패(대구과학대 2대0, 목원대 0대2패)를 거둬 조 2위로 4강에 진출했다. 송원대는 4강에서 원광대를 만나 0대2로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지난 13일 창단한 송원대는 채 한 달도 안 돼 출전한 첫 전국대회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남대부 세팍타크로 돌풍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송원대는 지난 4월 13일 창단한 후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 주목받았다. 팀 창단을 위해 고교 때 기량이 검증된 선수들을 영입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효율적으로 훈련한 결



송원대 김동재(왼쪽) 부장 교수와 세팍타크로 선수단.

과로 분석된다. 우정호 송원대 세팍타크로 감독은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 만족한다"며 "선수들이 1학년으로 구성된 데다 첫 대회인 만큼 긴장하지 않고 즐겁게 경기에 임한 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향후 대회에서도 꾸준히 3위 내 입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재 부장 교수는 "지도자와 선수들 한마음

로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는 팀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1학년 선수들이라 보니 대회 경험이 많지 않아 다소 고전한 측면도 있다"면서 "앞으로 많은 대회에 출전해 기량을 끌어올리고 팀웍을 다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3년 만이야... "즐거자~ 전남체전"

순천시 5월 20~23일 개최

코로나19로 3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전남도체육대회가 다음달 20일 순천에서 열린다.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오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육상, 축구 등 22개 정식종목과 축구, 게이트볼 등 2개의 전시종목으로

치러진다. 대회 슬로건은 '가자~순천으로! 즐거자~전남체전'이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19년 보성에서 열린 제58회 체전 이후 3년 만에 열린다. 2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22개 시·군 선수단이 출전할 22개 종목에 총 6706명의 선수단(선수 4378명, 임원 2328명)이 참가 신청을 마

쳤다. 광양시가 423명의 선수단으로(선수 215명, 임원 208명) 가장 규모가 큰 선수단을 꾸렸고, 이어 개최지인 순천이 404명의 선수단을(선수 215명, 임원 189명) 구성했다. 종목별로는 육상이 22개 시·군 538명의 선수들이 참가 신청을 마쳐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하는 종목이 됐다. 한편, 25일 오후 순천 보훈복지회관에서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대표자 회의 및 대진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떨어진 ACL 16강... 전남 "남은 2경기 최선"

전남드래곤즈가 아시아챌린저스리그(ACL) 남은 두 경기에서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다. 전남은 27일 오후 11시 유나이티드시티(필리핀)와 팹타운 스타디움에서 ACL G조 예선 5차전을 벌인다. 16강을 목표로 ACL 도전을 내밀었지만 전남의 지력 진출은 사실상 무산됐다. 전남은 앞선 4차전 멜버른시티와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도 골 결정력에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1-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무승부로 전남은 1승 1무 2패(승점 4로)를 기록, 조 3위에 머물고 있다. 16강 꿈은 멀어졌지만, 조별예선을 진행하면서 고무적인 장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앞선 경기에서 좌측 윙백으로 출전한 김태현은

맞대결을 벌인 프리미어리그 출신 칼 켈킨슨을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유효슈팅과 크로스를 만들었다. U22 전승민은 빌드업 플레이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오는 등 기대감을 키웠다. 전경준 감독은 "다른 경기의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력으로 진출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남은 2경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각오를 밝혔다. 팹타운과의 경기에서 좋은 플레이를 선보이며 자신감을 얻은 전승민은 "상대가 누구냐보다는 우리 것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6강 진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흥군청 여자볼링 전국대회 동메달 2 획득

고흥군청 직장운동부 여자 볼링팀이 전국대회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전남도체육회 제공>

26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고흥군청 여자볼링팀이 최근 광주시 레드핀볼링장에서 열린 제40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중년볼링선수권대회 일반부 3인조와 5인조 경기에서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고흥군청(강유라·이승원·김동요)은 지난 23일 여자 일반부 3인조전 출전한 29개 팀에서 가운데 총점 2516(에버리지 209.7)을 기록하며 대전시청과 구미시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24일 여자일반부 5인조 경기에서는 고흥군청 이미소, 강유라, 남은설, 이혜미, 김동요, 이승일이 총 4게임에서 총점 4114(에버리지205.7)

를 획득해 3위에 올랐다. 정영호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감독은 "고흥군의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선수들의 피땀 어린 훈련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 2관 봄날, 서울괴담
- 3관 봄날
- 4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 5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 6관 앵커
- 9관 공기살인
- 7관 씨네클립: 쿠몬의 여왕, 앵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8관 씨네클립: 로스트 시티, 서울괴담, 달빛 그림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해피 해프닝
GAC기획공연 포커스
일시: 2022.05.01.(일)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라비와 함께하는 키즈클래식
광주시립교향악단 어린이날 특별음악회
일시: 2022.05.05.(목)-07.(토)
장소: 광주 북구문화센터
문의: 062-524-5086